

에어백 경고등이 켜졌다면 ... 자동차 에어백의 모든 것

한참을 운전하던 중 계기판에 안전벨트를 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고등이 켜졌다면? 크게 자동차에 이상이 느껴지지도 않아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을 무시한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위험이 뒤따른다. '삼성화재다이렉트' (blog.naver.com/sfdirect)가 자동차 에어백에 대해 설명했다.

■ 에어백 경고등



안전벨트를 맨 사람 앞 등그라미가 있는 경고등은 에어백 경고등으로 보통 시동을 건 직후 약 6초 정도 점등된 후 점멸되어야 정상이다. 만약 6초가 지난 이후에도 점등된 상태이거나, 주행 중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에어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저전압의 자동차 배터리
- 에어백 모듈 이상
- 안전띠 버클 센서 이상
- 에어백 연결 단자 이상

경고등이 들어왔어도 점검을 받지 않고 자동차 운행을 계속하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경고등의 원인이 센서 이상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가 날 경우 에어백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더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와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만약 사고로 에어백이 작동한 적이 있다면 새 에어백이 장착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 에어백은 모든 충돌사고에 터질까?

에어백이 모든 충돌사고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후면 추돌이나 다른 추돌에 에어백이 터지면 더 큰 부상을 비롯하여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면 충돌에 반응한다.

에어백 작동 조건은 '정면 기준 30 이내 각도'에서 '유효 충돌속도가 20~30km/h 이상' 될 때이다. 예를 들자면 시속 100km/h로 달리던 차가 정면충돌로 인해 70km/h로 속도가 저하가 되어 유효 충돌 속도가 30km/h가 넘는 순간에 충돌 감지가 되어 에어백이 작동한다.

■ 에어백 위치는?



에어백은 대표적으로 운전석 핸들 속, 조수석, 측면에 위치하고 그 외에도 커튼형 에어백, 무릎 에어백 등이 내부에 위치한다. 최근에는 에어백은 차량 밖에도 위치하여 도보를 걸던 행인과 부딪힐 경우 행인이 다치는 일을 줄여주기 위한 에어백, 차량 간의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어백도 있다.

■ 에어백이 있으면 안전벨트는 안해도 된다?

에어백이 있는 위치에는 SRS라고 적혀있다. SRS는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즉, 보조 구속 장치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에어백은 위험한 순간에 보조로 안전을 지키는 구속 장치이다. 메인 안전장치는 안전벨트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차량도 있다.

그렇다면 에어백이 전개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에어백 전개 속도는 약 0.12초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 표시가 되어있는 위치 상단에 물건을 올려 두면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는 경우 그 물건이 흥기가 돼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그곳에 물건 등을 놓아두면 안 된다.



운전자 및 탑승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는 안전벨트이므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더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어린이는 에어백이 더 위험하다?



어린이는 에어백이 더 위험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렇다. 에어백은 어린아이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어백은 성인 사이즈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영유아 앞으로 에어백이 터지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6세 미만은 카시트를 이용하며 보조석보다는 뒷좌석에 앉아 위험의 순간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므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탑승자들은 꼭 바른 자세로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5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0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